

문화융합시대 창업 'K-MOOC강좌' 개설

전주대 주관, 한국형 온라인 공개 창업 강좌 진행... 가톨릭 관동대 포함 8개 대학 제작·우수한 창업역량 갖춘 인재 배출 목적

전주대학교는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융합 시대에 다양한 창업 현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창업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K-MOOC는 2015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는 웹 기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다. 현재까지 140개의 국내외 우수 기관과 함께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문화융합시대의 창업' K-MOOC 강좌는 전주대학교 주관으로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계명대, 아주



대, 울산대, 한남대, 호남대 등 한국 지역대 학연합(RUCK) 회원교가 함께 참여해 우수한 창업역량을 갖춘 인재 배출 목적으로 기획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상품 디자인을

위한 스토리텔링 전략, 디자인 씽킹과 창업, 클라우드펀딩의 기초와 실전, 콘텐츠 기획을 통한 창업 아이템 발견 등이다. 8개 대학이 제작한 창업강좌는 지난달 26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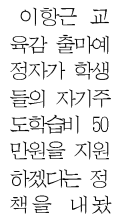
LINC+사업단 주승 단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과 문화융합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견해를 넓힐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 해당 강좌가 본격 운영될 경우, 창업 교육의 발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와 한국지역대학연합(RUCK)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학습자들에게 유익한 강의 콘텐츠를 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강좌는 K-MOOC 사이트(<http://www.kmoooc.kr>)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자기주도학습비 50만원 지원하겠다"

초6·중3·고3 4만 8000여명에 240억원 소요



이항근 출마예정자

이항근 교육감 출마예정자가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비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항근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애주기별 자기주도학습비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조사된 전북 학생들의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군산 회현중과 한들고 교장 재직시 실제 추진했던 정책을 전북교육 전체 차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항근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등 4만 8000여 명에게 50만원씩 자기주도학습비를 지원해 진로 탐색에 대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240억원이다."

이 예산은 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학교폭 학생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지방교육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났고, 또 자기소개서의 좋은 스토리를 제공해 진학에 유리한 조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나 공공기관이 진로체험이나 도전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2.4%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은 24.1%에 머물렀다. 또 보통이라고 답변한 학생들은 33.7%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체험활동 등에 교육당국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운데 진로탐색과 각종 활동에 자기주도 학습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6.9%의 학생들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항근은 "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학교폭 학생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기 위해 지방교육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도내 마이스터고 살리기 최선

도교육청, 학부모 설명회 등 지원사업 강화

도내 학령인구 감소, 현장 실습 중 사고 등의 이유로 마이스터고 진학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타시도에 비해 감소 비율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와 1개월의 기간단축 운영 등이다. 또 특성화고 혁신 지원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군산기계공고, 김제농

생명마이스터고, 한국경마축산고 전북기계공고 등 4곳이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2022년 468명 모집에 645명이 지원, 1.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54대 1보다 다소 감소했다.

한편 지난 6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 관광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현장 실습 폐지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수능 시험 안전하게

도교육청, 4~17일

특별방역점검기간 운영

원격수업 전환 권고

전북교육청은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험생이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4일~17일까지 특별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조치에 따른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교육청은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과 합동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전주 관내 학원 합동 점검은 11일 실시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 1주 전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가 원격수업을 전환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험생 대상 학원·교습소의 대면수업을 자제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교육센터, 도내 5개 학교 청소년 대상 실생활 코딩교육

전북대학교 창업교육센터(센터장 황운중)와 LINC+사업단(단장 고영호)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도내 5개 학교 청소년들에게 메이커교육을 통한 현장 중심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청소년 메이커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교육 상황에 맞춰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 위주의 교육 커리큘럼에 따라 미래 융합적 창의 인재 양성과 청소년 창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는 전북대 창업 지원을 받아 창업한 청년창업 기업 '가넷'이 참여해 LED TOWER, 아크릴 무드등 제작 등을 통해 코딩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제어하는 등 실생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특히 교육에 참여한 창업기업 '가넷'은 교육용 키트를 직접 개발해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제공,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가넷 김형주 대표는 "짧은 교육이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메이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마련한 황운중 센터장은 "전북대 지원을 받은 학생 창업기업이 성장해 지역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창업교육의 선순환 사례"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ODA-글로벌연수사업 진행

필리핀 오지 섬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설치 전문인력 양성 목적

전주비전대학교(총장대행 문용규)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행기관에 선정, 글로벌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ODA-글로벌연수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박효식 교수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필리핀 오지 섬 대상으로 태양광 건립 준비를 위해 진행되는 전문인력양성 사업이다.

이는 필리핀 소외지역 내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전문인력양성, 마을 단위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계, 정책적·기술적 운영역량 제고, 유지보수 역량 강화 및 필리핀 재생에너지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전주비전대학교 초청 연수로 기획됐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대체, 한국과 필리핀 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ODA, Country Report 발표

및 토론, Action Plan 작성법으로 진행된 온라인 세미나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특성,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성, 태양광발전소 유지관리, 태양광 발전소 입지 환경 분석 기술, 필리핀 오지용 태양광 발전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펼쳐진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글로벌역량 강화를 통해 재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 해외 취업 등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ODA-글로벌연수사업',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해외대학과의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